전남 '암 지도' 나왔다

道·화순전남대병원 5년간 정밀 조사…시·군 단위 발생률까지 수록

전남에 거주하는 남성 4명 중 1명은 결국 암에 걸려 사망하고, 도민 전체를 기준으로 해마다 6천600여명이 암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라남도와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병원)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남지역 암 발생률, 생존·사망률을 정밀하게 분석한 '전라남도 암 통계 자료집'을 통해 최근 밝혀졌다.

〈관련기사 14면〉

매년 평균 6,600명 암 발병
남성 4명 중 1명 암으로 사망

특히 이번에 발간된 통계 자료집은 5년간의 전국 암 등록자료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병원 전산자료, 사망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군 단위의 암 발생률까지 담고 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1999~2003년까지 5년간 전남지역의 신규 암 환자 발생건수는 3만2천852건(남성 2만184건·여성 1만2천668건)이며 같은 기간 동안 2만447명(남성 1만3천832명·여성 6천61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환자 5년 생존율은 남성 45.2%, 여성 63.5%로 암에 걸린 남성 2명 중 1명은 5년 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5년간 전국인구를 표준인구로 계산)를 시킬 경우 전남지역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남성 303.3명, 여성 174.9명이었으며, 암 사망률은 한 해 남성 222.1명, 여성 75.6명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호발(好發) 암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위암'이 각각 29.0%와 18.7%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이어 폐암(25.0%), 간암(23.0%), 식도암(6.0%), 직장·대장암(각 5.0%), 방광암(4.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위암 다음으로 갑상선암(11.2%), 폐암(9.4%), 간암(8.6%), 유방암(7.9%), 자궁경부암(6.7%), 대장·직장암(각 4.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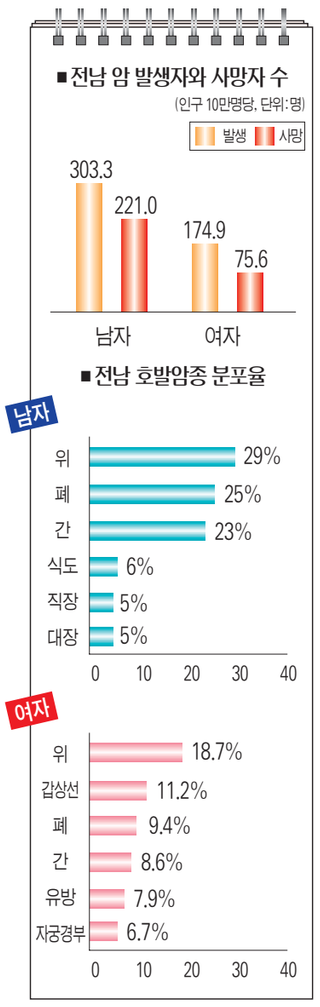
주요 암 발생률을 표준화시켜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남성 위암의 경우 보성군이 인구 10만명당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85.4명), 화순(84.7명), 장성(83.4명) 순이었다.

여성 위암 발생률의 경우는 장성군이 40.8명으로 가장 높았고, 보성(40.5명), 영광(33.5명), 나주시(33.2명) 순이었다.

폐암의 경우 영광군이 81.8명으로 많았다. 이어 장성(75.6명), 강진(70.8명), 진도(68.8명), 나주시(6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갑상선암은 여수시의 발생률이 59.6명으로 두 번째인 순천시(27.7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광양시(25.5명), 영광(24.5명), 해남(24.4명)도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우리는 어린이 소방수" 12일 광주시 남구 포충사에서 열린 '소방안전 체험행사'에서 유치원생들이 물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유치원생 3천여명이 참가했다. /위직량기자 jrwi@

전남 배드민턴協 횡령 의혹 수사

이적료 등 빼돌린 혐의…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전남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의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전남도 배드민턴 협회 사무실이 있는 화순실업고등학교와 협회 일부 관계자들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남도 소속 배드민턴 경기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지급받는 이적료를 소속 선수단 경리계로 입금시켜야 하는 데 이를 협회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 전남 모 군청 코치 등이 소속 배드민턴 선수 2명을 대전 D구청과 전북 K대학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500만원과 600만원의 이적료를 받아 군청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일부 협회 관계자들이 배드민턴 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비를 부풀려 작성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퇴직 선수들을 퇴직처리 하지 않고 이들의 급여를 받아온 혐의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이적료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선수단 및 협회 운영 등에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체육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GS칼텍스 3부두 공사

법원 "문제없다"

법정 공방으로 번진 GS칼텍스 여수공장 원유 3부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2일 광양항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는 S건설이 '매립지 주변에서 진행 중인 GS칼텍스의 부두 건설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여수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지정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S건설 측 주장은 부당하다는 여수해양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출 소녀에 마약 투약 성매매 강요

광주경찰청. 30대 검거

가출한 10대 소녀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2일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김모(36)씨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A(16)양 등 10대 소녀 4명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

청탁 명목 돈 챙긴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

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하도록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사건 당사자에게 거액의 청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40시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겨 판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추가로 5천만원을 챙긴 점, 변호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등을 감안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

의전차량 대형차 변경 '없던 일로'

쌍나팔

○…광주시가 의전차량을 대형차로 구입하겠다며 예산 요구를 했다가 시의회 예산심의 도중 갑자기 소형 차량으로 변경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분분.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노후화와 고장 등을 이유로 2천500cc급 의전 차량을 바꾸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3천300cc급 오피러스 구입 예산 4천95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자 돌연 2천cc급 LPG 차량과 999cc급 경차 2대 등 3대를 구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며 "예산 편성 때 충분한 검토하지 못한 점은 미숙했다"고 해명.

○…시의회 안팎에서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형차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광주시의 고육책으로 해석.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